



아홉번째 목수 김씨 전 ‘개와 의자의 시간’ 여는 김진승씨

20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

책 ‘서울에 판스홀을 허가라’ 저자

4년전부터 강진 다산초당 인근 거주

“마르는데 3년·뒤틀림 막는데 1년...

나무 작업은 기다림의 연속”



‘개가 되고 싶은 의자, 의자가 되고 싶은 개’

전시장을 가득 채운 건 다양한 모양의 의자와 탁자, 그리고 개다.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다채로운 의자와 온갖 표정을 짓고 있는 개들을 만나는 이번 전시 제목은 ‘아홉번째 목수 김씨 전-개와 의자의 시간’(20일까지 롯데갤러리).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개와 의자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들을 만든 여는 ‘목수 김씨’의 엉뚱한 가설에서 나왔다. “의자와 개는 인간과 더불어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의자는 개의 행동 양식을 닮아 진화했고, 인간은 의자에 모양에 따라 행동했으며, 개는 또 그런 인간을 따라하는 식이다.”

‘목수 김씨’는 근대의 풍경을 담은 책 ‘서울에 판스홀을 허가라’를 비롯해 ‘나무로 짠 책벌레 이야기’, ‘상상 목공소’,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를 쓴 탁월한 이야기꾼 김진승씨다.

전시기획, 출판기획, 전시평론 등 다양한 일을 해온 그는 20여년전부터 ‘목수 김씨’가 됐다. 광주에서는 처음 전시를 여는 그를 롯데갤러리에 서 만났다.

전시장에서 만난 개들이 웬지 슬퍼보인다는 말에 목수 김씨는 “아, 그런가요. 즐거운 애들도 많은데”하며 웃었다.

“개와 의자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이 쓰는 물건 중 가장 밀접한 게 의자, 동물 중 가장 가까운 게 개잖아요. 개와 의자가 흡사한 방식으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왔다는 이야기죠.”

그가 깎아낸 개들은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다. 두 귀를 쫘긋 세우고 당신을 물끄러미 쳐다 보는 개, 안아주고 싶은 귀여운 강아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짖는 개, 허리가 유난히 긴 개, 튼튼으로 만든 털복숭이 개 등...

나무의 형태를 고스란히 살린 의자와 탁자들은 구경하는 것도 흥미롭다. 원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 ‘나비장’이 박힌 탁자는 멋스럽고 쪽을 이용해 예쁜 색을 입힌 의자도 인상적이다. 청자 삼각하듯 문

양을 넣은 작품도 눈에 띈다. 모두 곁에 두고 싶은 의자들이다.

4년 전 그는 연구 하나 없는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에 내려와 터를 잡았다. 1년여에 걸쳐 홀로 집을 짓고 지난 해에는 작업실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다”며 ‘셀프 유배’를 온 그의 집은 다산초당 인근이다. 우연찮게도 남양주 출신인 정약용이 유배왔던 곳이 바로 강진이고, 그 역시 남양주 출신이니 뭔가 인연이 있는 듯하다.

20여년전부터 나무 작업을 시작한 그는 “책이나 쓰려고 내려왔지만” 주변의 나무들을 보자 마음이 동했다. 이번 전시작들은 강진에서 만난 뽕나무, 느티나무, 비자나무, 동백나무들로 만들었다. 그는 제재소에서 켜주는 제재목을 쓰지 않는다. 나무를 깎아 작품을 만드는 건 지남한 작업이다.

“20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 나무를 보고 무언가 ‘형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막상 의자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죠. 전 후 과정이 너무 길어 나무 작업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원목이 마르는데 3년은 걸려요. 1년은 방치해두고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형태를 만들고 나면 15년 정도 칠을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나무를 보면 욕심이 생기니 또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죠.”

이번 전시 작품 중에는 나무에 상상력을 버무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오토다미’(움직인형)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모두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들이다. 또 ‘개와 인간, 의자’에 대한 글귀들도 적어뒀 작품을 보는 데 도움을 준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를 한탄하면서도 그는 책을 쓴다. 최근 근대 이야기를 다룬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상태다. 그의 저서 ‘서울에 판스홀을 허가라’를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그가 들려주는 근대 이야기는 그 어떤 이의 글보다 흥미롭고 색다를 테니까. 전시된 작품은 구입도 할 수 있다. 문의 062-221-1807.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채화가 고현주씨 첫 개인전

14~20일 무등갤러리

수채화가 고현주씨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진다. 특히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인간군상들을 그린 작품들이 그렇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들의 삶엔 분명 고단함이 묻어있을 테지만 그림 속, 그들의 모습에선 온화함과 평온함이 함께 보여진다.

수채화가 고현주씨가 2003년부터 작업해온 작품들을 모아 첫번째 개인전을 연다. 14~20일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그녀의 작품들은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수채화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파스텔톤의 은은한 색채감이 작품에 온기를 더한다.

이번 전시작 중 인물화 다른 작품은 100호가 넘는 대작들도 있다. 화면속에 등장하는 슬픈 인물들의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어 훨씬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수채화의 매력은 물과 색이 만나 만들어 내는 우연성”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작품은 자연스런 변질이 만들어주는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준다.

고 작가는 초창기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며 풍광들을 담았다. 그러다 어느날 만난 시장 풍경을 계기로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모여서 두런두런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푸근하게 다가왔고,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화폭에 담고 싶었다. 그리고 자화상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물화 ‘정류장 이야기’ ‘간이역’을 비롯해 풍경화 ‘꽃내음 물내음 그리고 바람’ 등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고씨는 전국무등미술대전대상, 행주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수채화 전람회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사)한국수채화 협회 회원, 신형전 회원, 전국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류장’

광주시립미술관 16일 ‘아트 콘서트’

재즈 보컬 용산·팝페라 가수 정세훈 출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Art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프닝으로 마련된 ‘비스코시티’를 시작으로 재즈 보컬리스트 용산, 팝페라 가수 정세훈이 출연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꼽히는 용산은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재즈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팝페라 가수 정세훈은 많은 드라마 OST에 참여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용산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4차 미디어 아트 : 포스트 휴먼’을 비롯해 미술관이 기획전으로 마련한 ‘매향 근원 구철우전’, ‘남도가 낳은 예술가들’전

등 다양한 전시를 함께 둘러봐도 좋다. 문의 062-613-71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